기획예산처	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3. 31.(화) 11:30 배포 2026. 3. 31.(화) 08:30

“한-필리핀 재정협력 강화”

- 한-필리핀 예산당국 수장 만나 재정협력 방안 논의 -

- 양국 장관, “통상·안보 불확실성 속 재정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”
- 디지털·인공지능(AI) 활용 재정혁신 등 협력 구체화해 나가기로

박홍근 기획예산처(이하 ‘기획처’) 장관은 3월 31일(화) 서울 신라호텔에서 **롤란도 톨레도 필리핀 예산관리부*** **장관**과 양자 면담을 갖고, 양국 **재정운용 방향**과 **디지털·인공지능(이하 ‘AI’) 기반 재정관리**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 이번 면담은 **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**으로 이루어진 **장관급 양자 회담**으로, 필리핀 장관이 같은 날 개최된 **아태재정관리협력체**(이하 ‘PEMNA**’) 고위급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함에 따라 성사됐다.

* 필리핀 예산관리부(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, DBM): 예산편성, 집행관리, 재정투명성 등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산하 중앙행정기관

** 아태재정관리협력체(PEMNA): Pubil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-Pacific: 아·태 지역에 한국의 재정정책·시스템 등 지식·경험을 전수하여 역내국들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은행 주도로 출범(‘12년)

먼저, 양측은 최근 **글로벌 통상·안보 불확실성** 속에서 **경제 회복과 성장**을 위해 **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**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**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**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.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“**고(高)성과 부문 집중 투자** 등 **전략적 재원배분**을 통한 **경제·재정의 선순환**”을 강조하였으며, 톨레도 장관은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필리핀의 재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.

이어, 양국 장관은 **디지털·AI 기반 재정관리 혁신**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 양측은 **디지털·AI 기술** 활용이 **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**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했다. 한편, 톨레도 장관은 필리핀의 재정정보 시스템 도입 경과를 소개하며, 한국의 **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+)**이 필리핀을 비롯한 **아시아 국가에 모범사례**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.

양측은 **PEMNA의 발전 방향**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 두 장관은 PEMNA가 회원국 간 정책 경험 공유를 넘어 **디지털·AI 기반 재정혁신을 선도하는 협력 플랫폼**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, PEMNA 협력 고도화에 양국이 **리더십을 발휘**하며 **긴밀히 공조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기획처는 앞으로도 세계 주요국 재정·기획 당국들과의 **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**하고 구체적인 **협력사업을 발굴·추진**해 나가는 한편, 글로벌 재정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**국제사회 재정 논의**에서 **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**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.

첨부: 면담 사진(별도 배포)

담당 부서	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	책임자	과 장	황유실 (044-214-1930)
		담당자	사무관	윤영준 (yoonyj95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